

# “지역발전 이끌 대회 유산 남겨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예산을 들여 치르는 일부 국제대회의 부차적이 곳곳에서 불거지는 것과는 달리,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임시수조를 사용하는 등 저예산으로 준비했다. 특히 폐막 후 대회 성과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할 다양한 후속 사업들도 계획되고 있다.

이에 광주일보는 전남일보, 무등일보, 광주매일신문, 남도일보 등 5개 신문사와 연합 기획취재로 국내외에서 치러진 국제대회의 폐막 후 경기장 활용 등을 점검하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레거시 사업을 제안한다.

## 광주수영대회 성공, 레거시서 찾다

### <1>수영의 도시 광주의 시작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수영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레거시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단순히 대회를 개최하는데 의미를 두기 보다는 폐막 이후에도 지역민이 편하게 수영을 만끽할 수 있는 저변을 늘리는 등의 레거시 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대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폐막 후 대회 시설물을 활용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레거시 사업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이에 광주시는 다양한 대회 레거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다양한 수영대회 레거시

광주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사후 시설물 활용방안 및 레거시 사업 발굴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실상 대회 유산 남기기 작업에 돌입했다.

국내에서 국제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대회가 폐막 후 경기장 등 시설물은 방치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면 ‘낭비성 행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경기시설 확보에만 중점을 두고 대회를 준비하게 되면 재정 손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최도시와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광주시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른 경험을 토대로 올해 개최될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저예산·고효율’을 원칙 아래 준비했다. 기존 경기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임시 수조 경기장을 마련하는 등 경제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 2017년 8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해 다양한 레거시 사업을 내놓았다.

최종 보고서에는 스포츠 시설, 스포츠 문화,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교육, 스포츠 클러스터, 스포츠 역사 등 다양한 분야별 레거시 사업이 제안됐다.

#### ◇다양한 유·무형 레거시 사업 발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 사업으로는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수영 네트워크 구축, 수영선수권대회 교육자료 개발, 무등배마스터즈수영대회(가칭) 창설, 무등배수영선수권대회(가칭) 창설, 수리달이 야외수영장 건립, 엘리트수영선수육성생태계 조성, 광주국제스포츠대회 기념관 건립, 수영대회타임캡슐공원 조성 등이다.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개최효과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대회 기념유산과 제를 정책으로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대회기념유산 정책화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도 마쳤다. 또 실현 가능성, 적합성 등을 검토해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수리달이 야외수영장 건립, 광주국제스포츠대회 기념관 건립은 대회 개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영대회 기간에 설치될 임시수영경기장은 대회 폐막 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폐막 후 경기장 활용 등을 포함한 레거시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열렸던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모습.

### 기존 경기시설 리모델링·임시수조 사용

### 다양한 유·무형 레거시 발굴 서둘러야

### 일회성 아닌 지속가능한 대회 이어가야

후에는 철거되기에 서둘러 사후 연계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레거시 사업 준비가 중요  
광주수영진흥센터는 시민 생활 편의시설이기에 부지 선정에 일선 자치구의 경쟁이 불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광주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에서도 남구는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며 남구 지역사업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접근성, 수영인프라,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건립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내에 도시에서 치러진 수많은 국제대회를 분석하고 있고 이를 통해 광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영대회 레거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행복한 수영대회 레거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광주형 일자리 獨 ‘AUTO 5000’과 일맥 상통”

## 광주 찾은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

“광주형 일자리”의 아이디어는 폴크스바겐 본사가 있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유래했다. 볼프스부르크는 12만 명의 시민 중 7만 2000명이 폴크스바겐 직원 일 만큼 자동차로 먹고 사는 도시였다. 그런데 1990년대 말 경쟁력 약화로 생산량이 줄자 인건비가 싼 포르투갈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게 된다. 이 때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마련한 게 ‘AUTO 5000’으로, 폴크스바겐이 독립법인을 만들어 실업자 5000명을 월급이 5000마르크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진통 끝에 합의가 이뤄졌고 공장 이전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신규 채용을 늘리면서 도시는 살아났다. ‘AUTO 5000’은 이후 2009년 본사와 합병했다. 독일인들은 ‘AUTO 5000’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현재 국회에는 5·18 광주민중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다. 독일 분위기는 어땠을까.

28일 광주를 찾은 슈테판 아우어(Stephan Auer)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의견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슈테판 아우어 대사는 외교관으로 다른 나라의 정책 등에 관여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당시 독일 상황만 언급하는 수준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과 독일, 독일과 광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많다고 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의 ‘AUTO 5000’과 맥이 닿아있다. 당시 ‘AUTO 5000’에 대한 독일의 평가는 어땠나.”

▲성공적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바우하우스와 연계

## 과거 직시 중요해 홀로코스트 법 제정

## 민주화·인권 독일과 광주 비슷…협력 확대

다. 다만, 합병은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자율주행, 첨단주행기법 등으로 바뀌면서 비용 절감 대신, 자동차산업 혁신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다만, 독일의 ‘AUTO 5000’은 기업이 제안하고 정부는 중재 역할을 했다.

“오는 9월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다음 세대에 주는 선물(Humanity for next generation)’이라는 주제로 바우하우스 100주년과 연계한 전시가 마련되는데.

▲바우하우스는 지난 100년간 세계 건축과 디자인, 예술에 영향을 끼쳤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산업화에 도움을 줬 경제제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예술

적으로도 다양한 문화 예술을 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디자인비엔날레를 계기로 바우하우스 전시를 접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또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독일 문화 관련 연극, 콘서트, 문화 전시를 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예술가들을 초청, 독일 전시도 진행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예술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다.

▲쉽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독일 정부와 의회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일각에서는 비슷한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도 추가로 제정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따라 관련 법을 제정했고 정기 교육 과정에 역사교육을 포함시켜 기억하게 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은 교육 과정 중 2~3차례 교육을 받고 곳곳에 기념물을 설립,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 독일과 광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아이디어와 정책이 있다.

▲5·18을 전 세계에 알린 힌츠페터 등을 통해 독일과 광주는 여러 가지로 관련이 많다. 민주화, 인권,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도 비슷하다. 협력할 게 많고 다양한 방안을 서로 공유할 때 더 빛을 발할 것이다. 저렴한 교육비 등 독일의 교육적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독일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산업 등에도 공동 협력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

## 이용섭시장, 주한독일대사 접견 광주형일자리 논의

이용섭 광주시장과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를 접견하고 광주형 일자리와 경제 협력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오후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를 만나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독일의 적극적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슈테판 아우어 대사는 “5·18을 전 세계에 알린 힌츠페터 등을 통해 독일과 광주

는 여러 가지로 관련이 많다”며 “독일기업이 광주에 많지 않은데 경제적 교류 확대 등 협력방안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우토5000’은 폴크스바겐이라는 개별기업이 주도했고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가 주도해 성격이 다르지만,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고비

용 저효율의 문제가 지속되면 4차 산업혁명 진전과 함께 현재 있는 일자리마저 빠르게 없어질 것이라 위기감이 컸다”며

“이런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가 한국경제를 살리는 대안이라는 생각이 노동계를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슈테판 아우어 대사는 “독일과 한국 사이에 협력할 일이 많다. 협력 가능한 사항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독일 선수단이 많이 참가해 주기를 바라고, 독일 국민들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원일 기자 cki@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대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